



CULTURE TREND



얼마전까지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야단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배추김치 찾아보기가 힘들고, 밀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를 돈주고 사먹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김치 파동의 원인 중 하나는 유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볼 만합니다. 산지에서 농부들은 포기당 천원씩 밭 뚱기로 중간도매상에게 팔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한 포기에도 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먹는 형편이라 농부나 소비자 모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영화의 사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영화 제작자들은 애써 만들어도 극장에 걸기 어렵고, 신앙인들은 기독교영화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서울 기독교영화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극장에서 펼쳐졌던 서울기독교영화제는 올해로 벌써 여덟 번째를 맞습니다. 기독교영화를 통해서 하나님나라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영상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표로 200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해마다 주제를 달리해 온 서울 기독교영화제의 금년 주제는 <터치 유, 더 치유 (Touch you, The Healing)> 입니다. 앞의 영어 '터치 유'는 스마트폰의 터치를 연상시키는 가운데 각박하고 물질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의미하며, 뒷 부분의 한글인 '더 치유'는 현대인들을 어루만지면서 아픔과 소외를 고치는 치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마9:35) 모습을 영화를 통해 경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선보일 영화들은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이창규 감독의 <고르고초 하쿠나 마타타 - 지라니 이야기>는 이번 영





화제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가난한 학생들이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선교사들의 헌신도 빛을 발하고 있지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간직하기 시작한 지라니 합창단원의 모습은 관객의 마음에도 역시 사랑과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교만과 절망의 상처들이 영화 속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켜보게 되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기독교영화제의 의미와 역할은 단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좋은 영화를 한 곳에 모여 볼 수 있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비싼 배추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산되는 배추가 원래 적다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배추를 재배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배추파동은 내년에도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기독교 영화가 제작되고 젊은 영화인들과 제작자들이 기독교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기독교영화제는 매년 사전제작지원을 해오는 한편으로 경쟁부문을 도입하여 시상하는 일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가 영화 속에 드러나는 단편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단편영화 경선 외에도 금년에는 교회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을 모아서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는 새로운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영화를 영상이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교회사역 속 깊이 침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하나님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 교회에서 만든 교육용 영상콘텐츠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상시대에서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번 영화제가 단순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교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가할 만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기독교 영화 하면 옛날 영화 <벤허>의 감격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젊은 영화인들이 새로운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서울기독교영화제가 무엇보다도 기독교 영화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기독교 영화의 발전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기독교영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기독교영화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울기독교영화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화의 소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도구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글. 강진구(고신대학교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